

유튜브 키우기

퇴근 후 10분 실험실

첫 영상 세 편으로 시작하는 작은 채널



수업용 가상 프로젝트 · 2026년 10월 11일

머리말

큰 장비 없이도 퇴근 후 작은 실험 하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. 이 채널은 일상에서 궁금했던 일을 직접 해보고, 과정과 느낀 점을 짧게 나누는 가상의 실습 프로젝트입니다.

목차

- 1 누구에게 보여줄까
- 2 첫 영상 세 편
- 3 첫 영상 대본
- 4 썸네일과 제목
- 5 다음 한 편을 이어가기

누구에게 보여줄까

퇴근 후 남은 에너지가 많지 않은 사람을 떠올려봅니다. 영상 한 편이 거창한 도전 대신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행동 하나를 건네면 좋겠습니다. 채널을 소개할 때는 구독자 수보다 시청자가 얻을 경험을 먼저 설명합니다.

직접 바꿔보기

한 문장 소개: 퇴근 후 10분, 궁금했던 일을 직접 해보는 채널입니다.

나의 메모

바꾸고 싶은 문장이나 떠오른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.

첫 영상 세 편

첫 번째 영상은 책상 위 물건 세 개만 남겨보는 실험입니다. 두 번째 영상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 풍경을 관찰하는 기록입니다. 세 번째 영상은 냉장고 속 재료 세 가지로 간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. 각 영상은 준비, 시도, 느낀 점 순서로 구성합니다.

직접 바꿔보기

공통 형식: 궁금한 점 → 해보는 장면 → 예상과 달랐던 점.

나의 메모

바꾸고 싶은 문장이나 떠오른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.

첫 영상 대본

도입: 퇴근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, 오늘은 책상 위 물건을 세 개만 남겨보겠습니다. 과정: 손이 자주 가는 물건을 골라 나머지는 옆 상자에 넣습니다. 책상을 사용하는 모습을 짧게 찍습니다. 마무리: 정리가 잘됐다는 말보다 사용하면서 달라진 점을 한 가지 말합니다.

직접 바꿔보기

마지막 질문: 여러분이라면 무엇 세 개를 남기겠어요?

나의 메모

바꾸고 싶은 문장이나 떠오른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.

썸네일과 제목

썸네일에는 정리 전후 사진을 한 장씩 놓고 제목은 짧게 적습니다. 예시 제목은 「책상 위에 딱 세 개만 남겨봤다」입니다. 영상에서 실제로 보여주는 내용과 제목을 맞추습니다. 결과가 예상과 달라도 그 과정이 이야기의 재료가 됩니다.

직접 바꿔보기

촬영 재료: 책상 사진, 손이 움직이는 장면, 정리 후 전체 모습.

나의 메모

바꾸고 싶은 문장이나 떠오른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.

다음 한 편을 이어가기

첫 공개 후에는 반응을 보며 다음 실험의 질문을 고릅니다. 조회수 목표를 보장하는 공식 대신 내가 계속 짤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찾습니다. 이번 주에는 영상 하나를 끝까지 만들고, 다음에 바꾸고 싶은 점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.

직접 바꿔보기

오늘의 완료: 채널 소개 한 문장, 첫 세 편의 제목, 첫 영상 대본.

나의 메모

바꾸고 싶은 문장이나 떠오른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.

다음 작업으로 이어가기

짧은 실험 한 편을 보고 오늘 직접 해볼 일을 하나 고른다.

웹페이지

같은 원고를 사람들이 둘러볼 수 있는 소개 페이지로 만듭니다.

소개영상

세 장의 이미지와 세 문장으로 12초 영상을 저장합니다.

나의 첫 수정

제목, 색상, 문구 중 하나를 바꾼 뒤 다시 열어 확인합니다.